

권오규 위원장 인사말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활동을 마치며...



권오규 위원장

친애하는 동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입니다. 오래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동문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학부 교수들과 동문들은 지난 2017년 11월 “오늘을 만든 헌신, 내일을 만들 후원(오/현/내/후)”을 슬

로건으로 한 경제학부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우석경제관 및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과 연구기금, 학생지원 등에 사용될 400억 원의 경제학부 발전기금 모금을 목표로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성기학 회장의 100억 원 기부를 시작으로, 동문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활동이 잇따라 동문 모금 23억 원, 비동문 개인 모금 4억 원, 기업 모금 193억 원 (성기학 회장의 30억 원 추가 기부, 우리은행 24억 원, 미래에셋 20억 원, 크로바상사 이강홍 회장님 10억 원, YBM 민선식 회장님 5억 원, 대구그랜드호텔 조용격 회장님 2억 원, 동서식품 김석수 회장님 약 2억 원 포함), 정부 지원 82억 원, 본부 지원금 16억 원 등 총 318억 원의 모금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주)두나무 송치형 대표가 경제학부 발전기금으로 100억 원을 기탁하여, 모금 총액이 418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발전위원회 출범 시 목표했던 400억 원을 초과하는 모금을 달성하는 대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두나무 송치형 대표(98학번)는 경제학과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하고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치형 동문은 경제학부의 세계적 석학이 서울대를 떠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번에 조성된 ‘두나무 기금’으로 우수한 학자를 서울대로 모셔서 경제학부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두나무 기금은 우수 학자 유치뿐만 아니라 우수한 대학원생과 학부생 지원을 통해 차세대 학자를 양성하고, 한국경제혁신센터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불과 4년 만에 이렇게 놀랍고 뜻 깊은 모금 성과를 거둔 것은 모두 동문 여러분의 애정 어린 성원과 지원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동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해 주신 황영기 동문, 모금 사업의 큰 그림을 그려 주신 박재운 명예교수님을 포함한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구체적 모금 실행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주 회의를 개최한 박진호, 박문구 동문 등 실무위원회 위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주시고 경제학부와 동문 간의 협력을 이끌어 주신 류근관, 김대일 전임 학부장님들과 이번 두나무 기금 조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신 이상승 현 학부장님, 모금에 직접 참여하시고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들, 행정업무를 총괄해 온 강내영 실장과 직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경제학부는 동문들의 염원과 헌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출발과 함께 큰 걸음을 내딛어갈 것입니다. 최근의 경제학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완공된 우석경제관은 내년 초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과 함께 개관할 예정이며 국가 경제 발전 전략 연구를 위한 융합 연구의 허브로 발전시켜 갈 계획입니다. 신축될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물은 지난 8월에 설계자를 선정하여 앞으로 1년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겨울에 착공하여 2024년 말경 완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경제학부가 활용하는 공간 면적보다 1.5배 확장된 규모로 들어설 한국경제혁신센터는 경제학부 구성원 모두가 입주하는 명실상부한 경제학부의 건물로서 앞으로 경제학부가 계속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하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성된 두나무 기금은 그 발걸음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문 여러분, 이제 저를 비롯한 경제학부 발전위원회는 400억 원 모금의 소임을 다하고 이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발전위원회 활동에 보여주시는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한국경제혁신센터 부지선정 과정에서 다소 간의 이견

2면에서 계속됩니다.

과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경제학부 발전에 대한 애정과 염원의 발로 였다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1기 발전위원회의 소임을 마무리하는 것이 경제학부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활동을 끝내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변 치 않은 애정으로 경제학부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에 지 속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학부는 기금의 활용과 성 과를 동문들께 소상히 알리고 더 큰 발전을 위한 고민을 동문들과 함 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문들의 높은 뜻을 기억하고 변 함없는 열정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서 울대 경제학부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헌신해주신 동문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드리지 못해 송 구합니다. 곧 모든 분들을 뵙고 그동안의 활동에 감사하고 성과를 함 께 축하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늘 건 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1일

서울대 경제학부 발전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드림

주요 소식

두나무(송치형 의장), 서울대에 200억 기부



두나무 김형년 부사장, 서울대 오세정 총장, 두나무 송치형 의장 (왼쪽부터) 출처 : The Block Post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 문 기업 두나무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본교에 200억 원을 기부하 였다. 두나무 기업은 송치형 동문이 의장으로 활동 중인 곳이다.

서울대학교와 두나무는 지난 11일 서울대학교에서 오세정 총장, 이원우 기획부총장, 유홍림 사회과학대학장, 장판식 농업생명과학 대학장과 이상승 경제학부장, 두나무 송치형 의장(경제학과 컴퓨터 공학 복수전공), 김형년 부사장, 이석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 전기금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나무는 송치형 의장, 김형년 부사장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와 농경제사회학부의 발전기금으로 각각 100 억 원과 50억 원을 기탁한다. 기금은 신입 교수 및 세계 수준의 교수 지원과 연구 환경 조성, 한국경제혁신센터 지원, 대학원생 및 학부 생 장학금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두나무는 발전기금 150억 원 외에도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의 ‘서울 대 STH 핀테크 혁신 벤처투자조합’펀드와 ‘서울대 STH 창업초기 벤처투자조합’펀드에 총 50억 원을 출자,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상 황속에서도 기업의 성취를 넘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두나 무의 기부 실천은 모교에 큰 힘이 된다”며 “서울대학교의 교육·연 구 역량을 제고하고 인재양성과 진리탐구라는 대학 본연의 사명을 이루어 가는 데 소중한 사용될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두 나무 송치형 의장은 “2012년 두나무 창업 당시 사무 공간을 작게 지 원받아 시작했고, 초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나중에 두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학교를 위해 반드시 보답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감 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요소식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확정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논의가 오랜 기간을 거쳐 마무리 되었다. 당초 우석 경제관 옆 파워플랜트 부지에 건설될 계획이었으나, 해당 부지에 서울대 전체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압송전선이 위치하여 무 산되었다. 경제학부와 서울대 캠퍼스 위원회는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을 위해 고압송전선을 이전하여 처음 계획과 같이 진행하는 방 법, 영선반 부지(우석경제관 옆)에 건립하는 방법, 사회대 근처 새부 지를 확보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오랜 기간 논의 하 여 왔다. 긴 논의의 끝 작년 12월 한국경제혁신센터를 사회대 도서관 부 지에 건립하기로 하였다.

사회과학대학은 경제학부와 별개로 노후화된 건물 리모델링 공사 를 계획하고 있었다. 경제학부는 당초 계획인 우석경제관 옆 부지에 한국경제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학부 교육환경 차 원에서 사회대와 완전 분리되기보다는 교육공간을 일정 공유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대 도서관 부지를 한국경제혁신센 터 부지로 선정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작년 11월 경제학부 자체 교 수회의의 투표를 통해 이 안건이 통과되었으며, 사회대, 서울대학교 회의의를 거쳐 12월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 은 사회대 리모델링과는 별개의 예산을 통해 이뤄질 것이다.

한국경제혁신센터 건립은 지금껏 4,5개의 건물로 분리되어 운영 되던 학부 교육 및 연구를 한곳으로 모아줄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과 정에서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며 경제학부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모든 경제학부 교수연 구실, 학생연구실 및 강의실이 신축될 한국경제혁신센터로 이동할 것이고, 학내 여러 경제연구소 역시 자리할 계획이다. 리모델링되어 질 사회과학대학과 연결은 되어 있었지만, 확실한 독립 건물로 기능 하여 경제학부 자체 기능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회과학대학과의 융 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계획인 우석경제관 옆 부지로 이동하여 신축된다면 위치가 외곽인 점, 교통의 어려움 등으로 수많 은 경제학 복수 및 부전공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새로운 부지선정계획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동시에 경 제학부의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혁신센터는 발전위원회 모금액 중 150억 원을 투입하여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봄부터 약 1년 반의 실시 설계 및 시공사 선 정 과정을 거치고, 이후 2년 반 정도의 건축 과정을 거쳐 2025년 개 관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완공 예정인 우석경제관은 대규모 건립 액을 기부했던 성기학 회장의 뜻에 맞게 학제 간 ‘융합’의 장으로써 기능할 전망이다. 최근 경제학은 학문 자체의 범위를 넓히고, 다양 한 타학문과의 융합 연구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 보건경제, 데이터 사이언스 등이 그 예이다. 우석경제관은 이러한 동향에 맞게 경제학 부뿐만 아니라 서울대 전체의 다양한 학과의 연구에 이용될 것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학문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내부 인테리어 및 첨단장비 설치가 완료되지 않았다. 빠른 시일 내로 모든 부분이 완료될 것이고 경제학부는 학부 자체 오픈톡 (open talk)을 시작으로 우석경제관을 본격 이용할 예정이다. 첫 오픈톡은 11월 개최로 준비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경제학부 모든 동문, 교수 및 직원들의 노력으로 우 석경제관이 개관하고 한국경제혁신센터 역시 건설 계획이 확정되 었다. 새롭게 맞이할 두 건물이 더 나은 교육의 장이 되어, 한국 경 제 발전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교수 수상 및 동정

이근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취임



이근 교수가 2021년 1월말 비상근 직인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취임하였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등을 조언하는 헌법상 기구이다.

이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학, 석사를 마치고 UC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전공은 경제발전론이다. 쉐퍼터 상을 수

상하였고 한국 국제경제학회장 역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에 재직 중이다.

이인호 교수 홍조근정훈장 수상



이인호 교수가 지난 4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 40주년 및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분석 및 자문수행을 통해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홍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한편, 공정거래의 날은 1981년 4월 1일 공정거래법 시행을 기념해 2002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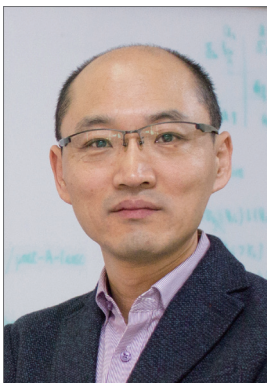
주도로 열리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선 공정거래 유공자 27명이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상하였다.

장용성 교수 제40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

한국경제신문사는 장용성 교수를 ‘제40회 다산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다산경제학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장용성 교수가 경기 변동과 노동·거시경제 정책 관련 논문 20여 편을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학문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산경제학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을 기리고 경제 연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1982년 제정된 상으로 국내 경제학자에게 수여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시상식은 지난 10월12일 오전9시 서울 중림동 한경 18층 다산홀에서 열렸다.



서명환 교수 제51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수상



지난 4월 13일 서명환 교수가 ‘제51회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을 수상하였다. 매경이코노미스트상은 1971년 처음 제정돼 올해로 51회이다. 이 상은 국내 최고의 경제·경영학자 대상 학술상으로, 학문적 성과뿐만 아니라 현실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친 학자에게 주는 최고 권위의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명환 교수는 ‘HP필터를 통한 코로나19 접촉

률 변형 모델에 관한 연구(Sparse HP filter: Finding Kinks in the COVID-19 Contact Rate)’를 통해 기존 중장기 추세선을 추

출하는 데 쓰였던 HP필터(Hodric-Prescott Filter)를 이용해 하루 단위로 변하는 데이터의 추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HP필터는 통상 분기별·연도별 GDP 변동 추이 등 경제지표의 중장기적인 흐름을 분석하는 데 쓰이는 기법이다. 거시경제학에서는 이 필터를 통해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단기 요인은 없애고 중장기적으로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만 남겨 두며 긴 호흡의 추세선을 추출하는 데 활용했다. 서명환 교수는 HP필터를 응용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등 단기 변동 데이터 분석에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진욱 한국경제학회장은 “서 교수 논문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실증 분석에 유용하고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명환 교수의 연구 성과는 다른 분야로 확장할 가능성 역시 충분하다. 주식, 채권, 환율 변동 등 코로나19 외에도 일일 추세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이다.

조영준 교수 연구팀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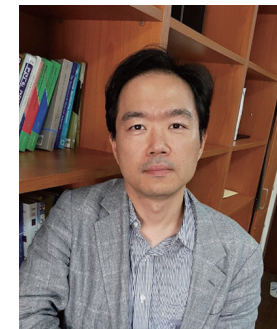


조영준 교수의 연구팀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공모한 2021년도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었다.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은 2021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간에 걸쳐 해마다 10억원씩 총 5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대형 프로젝트로서,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이다. 2021년도 사업의 경제/사회 영역에서는 조영준 교수의 연구팀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연구 주제는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에 대한 학술적 성과의 공유와 확산”이

다. 서울대학교 국가지원연구센터의 하나로서 K학술확산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한국경제사 연구의 최신 성과를 다각적으로 조명할 계획이다. 연간 10개 이상의 동영상 강의 시리즈를 제작하여 K-MOOC 및 SNUON을 포함한 국내외의 대표적 플랫폼에 탑재하고, 연구서 및 대중서를 비롯한 각종 단행본을 국문 및 영문으로 출판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발전 경험을 전 세계로 확산할 것이다. 우리 학부에서는 이철희 교수와 홍석철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합류하였다. K학술확산연구센터의 운영 및 연구 수행 과정에서 경제학부 및 경제연구소와 긴밀히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학부의 교육 및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우 교수, 홍재화 교수 경제학부 부학부장 겸보

지난 2년간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역임했던 서명환, 최승주 교수에 이어, 2021년 9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김진우, 홍재화 교수가 각각 교무부학부장과 학생부학부장을 겸보한다.



김진우 교수



홍재화 교수

신임교수 부임



황일우 교수 경제학부 부임

황일우 교수가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황일우 교수는 미시경제학 전공으로 2014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재원 교수 경제학부 부임

이재원 교수가 2021학년도 08월 01일부터 경제학부에 새로 부임하였다. 이재원 교수는 거시경제학 전공으로 2008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 소식

이근 교수

학술지 World Development에 논문 게재



이근 교수는 경제발전론 분야 탐저널인 World Development 에 아래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Lee, K. et al, 2021, “Variety of National Innovation Systems (NIS) and Alternative Pathways to Growth beyond the Middle-Income Stage,” 이 논문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을 가능케하는 경로와요인을 미국특허 자료를 이용한 국가혁신체제 분석을 통해 밝혀내었다. 즉, 균형적 발전경로가 있는 반면, 단주기 산업에 특화하는 불균형 경로도 있음을 밝히고, 중진군 함정형 경로의 존재도 구명하였다.

장용성·박예나 교수

학술지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논문 게재



장용성·박예나 교수가 세계 최고의 경제학 학술지 중 하나인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논문 Optimal Taxation with Private Insurance를 게재하였다.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적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효율성-형평성간 상충관계의 균형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조세변화(tax perturbation)에 대한 경제 주체의 반응 (예를 들어 노동 탄력성)과 같은 통계량들로 잡아내어 최적조세공식을 충분 통계량의 함수만으로 도출, 분석하는 충분 통계 방법론 (Sufficient Statistic Approach 혹은 Perturbation Approach)은 Saez (2001)의 선구적 연구 이후 괄목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정태적 경제 (static economy) 환경에 국한되어 그 현실적용 범위와 실용성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Perturbation Approach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민간 보험 및 저축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의 비선형 최적 조세 함수 (Optimal Nonlinear Income Tax Schedule)를 도출한다. (1) 먼저, 민간 저축/보험 시장이 존재

하는 경우, 기존 충분통계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매우 강한 가정들(예를 들어 완전 금융시장이나 완벽히 불완전한 금융시장)이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서 단순한 정태적 공식에 의존하는 기존의 관행에 주의를 준다. (2) 보다 현실적인 불완전 시장 일반균형모형 (heterogeneous-agents general-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사회적 후생 (social welfare)을 극대화 하는 최적 조세 공식을 분석하고 또한 조세함수를 정량적으로 계산해 정책 논의에 보다 과학적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3) 구체적 사례로 Huggett (1998) 모형과 Kehoe Levine (2002) 형태의 불완전 자본시장 경제에 적용해 보았다. 민간 자본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최적 소득세율은 (민간 자본시장이 없다고 가정하는) 기존 연구에 비해 고소득 계층의 경우 약 8pp 정도 낮은 것으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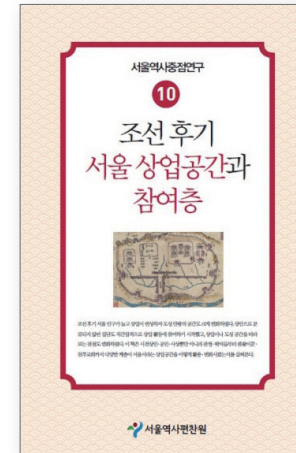
서명환 교수

학술지 Annals of Statistics에 논문 게재



서명환 교수가 세계 최고의 통계학 학술지 중 하나인 Annals of Statistics에 논문 Factor-Driven Two-Regime Regression을 게재하였다. 게재된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계열 실증분석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인 인자분석법 (factor analysis) 과 임계점에 의한 상태 (regime) 변환 모형 (threshold regression) 의 특성을 결합하여 두 모형의 실증적 적합성을 크게 확장시킨 논문이다. 기존의 상태변환 모형에서 상태의 의미는 거시 경제전반의 상황을 요약하는 불황의 상태나 아니냐의 의미를 가지나, 하나의 변수가 임계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 지나치게 단순하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인자분석법은 주로 선형모형에만 적용되어 회귀변수가 경제의 상태에 의존하는 점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상태 결정방식은 비지도 기계학습법을 적용하여 빅데이터로부터 경제 전반의 정보를 요약하는 다변량 인자를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인자를 바탕으로 경제상태를 결정하는 임계지수 (threshold index) 를 상태변환모형에서 최적화 방식을 통해 추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명료하지만 실증분석에서 이 최적화 문제가 NP-hard로 복잡하며, 그 결과 최적화로 구한 추정치의 분포를 유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적절한 통계적 추론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최신의 정수혼합최적화 (Mixed Integer Optimization) 알고리즘으로 변환하여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정치의 대표본 극한 이론을 개발함으로써 이 방법론을 사용한 계량분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교수신간



조선 후기 서울 상업공간과 참여층

조영준 외 6명 지음

서울역사편찬원 / 2021년 3월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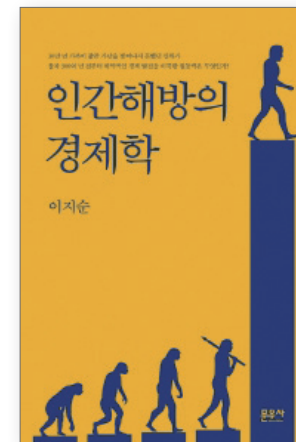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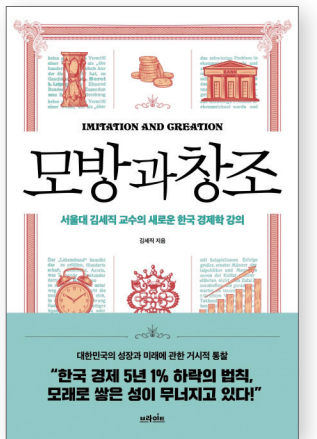
조선후기 서울 및 상업에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 7명이 합심하여 저술한 책으로서, 조영준 교수는 “조선 후기 한성부의 방계(坊契)와 시전(市廛)”을 주제로 하되, 특히 계(契)에 주목하여 고도서와 고지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모방과 창조

김세직 지음

브라이트 / 2021년 7월 12일 출간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국 경제가 왜 지속적 추락을 하게 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감춰진 원리들을 밝히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반박하며, 더 나아가 경제적 곤경을 벗어날 해법들은 무엇인지 알기 쉬운 경제적 이론과 경제학자들의 풍부한 사례를 토대로 보여준다.



인간해방의 경제학

이지순 지음

문우사 / 2021년 6월 9일 출간

과거 원시공동체부터 현대까지의 역사를 통해 인간해방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도출하는 책으로, 경제에 대한 폭넓은 통찰력을 길러준다.

위기의 한국경제

김인준 지음

울국출판사 / 2021년 7월 23일 출간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초래된 요인들을 살펴보고, 해당 요인들이 결합하여 작동하는 메커니즘의 효과를 분석하는 책으로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단을 알 수 있다.



황일우 신임교수 인사말



황일우 교수

안녕하세요, 올해 경제학부에 새로 임용된 황일우입니다. 저는 서울대 물리학부를 졸업하고, 전공을 바꾸어 서울대 경제학부에서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학으로 유학을 나가 박사학위를 받은 후, 마이애미대학교에 재직하다가 올 봄 학기부터 서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마이애미에서의 긴 외국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와, 젊은 날 추억이 가득한 캠퍼스에서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분이 몇 달이 지나도 여전히 새롭습니다. 저의 주 연구 분야는 미시경제학이론, 그 중에서도 정보경제학입니다. 저는 시장과 여러 사회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의 흐름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복잡해보이는 사회현상을 직관적인 모형으로 단순화시켜 통찰을 이끌어내는 작업의 매력에 이끌려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꾸었습니다. 공부를 계속해 나가면서, 제가 궁금해했던 많은 현상들을 “불완전한 정보의 흐름”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조직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현상들에 관심을 가지고, 협상이론, 산업조직론, 정치경제학 등의 분야에 최신 정보경제학 모형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반균형이론은 가격을 통한 정보전달이라는 통찰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상품의 가치에 대해, 생산자들은 상품의 생산비용에 대해 각기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rrow와 Debreu는 시장주체들이 다른 이들의 상황을 모두 알 필요 없이, 시장 가격만 안 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시장 가격이 상품의 “희소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정보의 불완전한 공유를 경쟁시장이 해결해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실제 사회에서도 정보의 불완전성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일반균형이론이 실제 시장을 근접하게 모형화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정보경제학의 창시자들은 시장가격이 전달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상품의 “성질” (이 상품에 내가 모르는 숨겨진 결함이 있을까?) 과 경제주체들의 “행동” (내가 고용한 직원이 일을 열심히 할까?) 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Akerlof의 중고차시장 모형 (Market for Lemons) 은, 상품의 성질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할 때 시장은 비효율적이 되거나 아예 작동을 중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행동에 관한 정보의 불완전성에 대해서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을 불완전하게나마 통제하기 위한 계약이론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의 연구는 이러한 불완전정보가 경제주체들의 “동적” 행동에 어떠한 행동을 미치는가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제 박사학위 논문은 정보비대칭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증가할 때 시장거래의 동적인 변화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중고차시장 모형을 생각해 봅시다. 중고차 소유주가 차를 소유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차주는

이 차에 숨겨진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정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대칭적으로 변화합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품의 판매가격이 U자 곡선을 그리면서 변화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정보비대칭성의 증가로 인한 역선택효과가 증폭하면서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붕괴되며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비대칭성을 시장참여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가격이 회복합니다. 이러한 제 논문의 결과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당시 Mortgage-backed security (MBS) 시장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저는 정보경제학의 새로운 분야인 정보설계이론 (Information Design) 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정보설계이론은 이제 10년이 조금 넘는 신생연구분야로, 미시경제학이론에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메커니즘설계이론 (Mechanism Design) 은 경제주체의 정보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들의 선호를 변화시켜 설계자가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분석했습니다. 정보설계이론은 거꾸로 경제주체의 선호가 고정된 환경에서 그들이 얻게 되는 정보를 조정하여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분석합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전략, 혹은 A학점을 과도하게 많이 주는 학교의 학점체계 등이 정보설계이론으로 분석가능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저는 정보설계이론의 여러 응용분야 중 다음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경쟁시장에서 상품에 대한 광고와 균형가격간의 관계입니다. 경쟁관계에 있는 복수의 회사들이 자신이 생산하는 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광고) 을 통제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전략적인 “경쟁균형정보설계”가 기존의 “경쟁균형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개발중인 모형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플랫폼들의 경쟁구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정부의 최적투명성을 설계하는 문제입니다. 정치경제학의 연구결과들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때로는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한 유인을 왜곡시켜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저는 정보설계이론의 최신 결과를 이용하여, 정치가들의 사적 이해관계를 공공의 이익과 최대한 합치될 수 있게 하는 투명성 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서울대학교에서, 뛰어난 교수님들과 열성적인 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지식 공동체의 힘을 새삼 실감합니다. 탁월한 연구업적을 쌓아오신 선배교수님들과의 대화는 언제나 많은 자극이 됩니다. 첫 학기 수업과 리딩그룹을 통해 만나 본 학생들은 저희 세대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고, 자신만의 호기심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제 역량이 부족하지만, 아무쪼록 학생들의 열정을 잘 이끌어주며 독려하고 싶습니다. 경제학계에서는 미국 최상위권 학교들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의 학교들에서 자체적으로 뛰어난 박사들을 배출하며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추세가 도드라집니다. 개개인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역시 한국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독창적인 지식을 만드는 연구그룹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꾸준히 제 역량을 키워나가며, 창조적 지식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작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력

2014-2020 University of Miami
경제학부 조교수
202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약력

2006 서울대 물리학 학사
2008 서울대 경제학 석사
2014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대학원 자치회장 기고글



이찬호
대학원 19학번, 자치회장

학우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대학원에 진학하고 나서 제 자신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동기 및 선배 대학원생들의 호소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다양한 스트레스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COVID-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지만 이를 털어내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학원생 신분은 참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으로서 받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닐까 합니다. 또래들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을 얻고 재산을 축적하는데, 반면에 나는 학생의 신분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불안감을 줍니다. 요즘에는 취업난이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심화된 만큼 졸업을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과연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고학력 백수’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은 모두가 똑같이 가지는 스트레스거리일 것입니다. Singer(1992)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모호한 역할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학원생에게 제일의 본업은 반박할 여지없이 공부입니다. 이수 학점과 요건을 채우고, 전공 지식과 연구들을 따로 공부하고, 직접 연구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학자의 길을 가는 것. 이 진로를 택한 것은 우리의 학문적 지식을 넓히고 나중에는 직접 지식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대학원생이 온전히 학문에만 힘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학비와 생활비가 충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편당의 수단으로써 강의연구조교, 연구용역조교, 근로 장학생 업무 등에 치이게 됩니다. “준(quasi)” 직장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을 학업과 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할의 모호성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학원생으로서 본질적인 역할은 지식의 습득 및 생산이며 여기에는 투자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조교로서 고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직장인’의 역할이 추가되면 두 역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부와 조교 업무 모두 루틴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 시간 배분을 하기에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직장인에 비해 높지 않은 조교 업무의 보상,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공부와 업무를 해야 하는 ‘양적 과중’, 그리고 공부나 업무의 난이도가 너무 높음에서 오는 ‘질적과중’ 역시 덤으로 오는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Cartwright와 Cooper(1997)의 연구에 따르면 함께 공부하거나 일을 하며 마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학원 사회도 결국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사회입니다. 서로 다른 목표와 가치관, 경험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 업무로 부딪히다 보니 대학원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충돌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는 합니다. 이처럼 대학원생으로 생활하다 보면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위에 언급한 요인 말고도 나열하지 못한 수많은 요

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과증되었을 때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학업과 업무상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연구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위해 각자에게 맞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는 운동이나 명상과 같은 극복 방법 대신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분류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좋고 나쁨은 대학원생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아닐지를 뜻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좋은 스트레스는 내 자신을 자극함으로써 대학원생으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스트레스입니다. 일과 공부에 관한 스트레스는 대부분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의 특징은 i) 상황을 겪고 나면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고, 또한 ii) 문제 해결에 스트레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코스는 석박통합과정의 경우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60학점으로 많기에 한 학기에 많은 과목을 소화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느 대학원생과 같이 관심 주제 탐색을 위해 개인적인 공부를 따로 하는 한편 조교 업무를 수행하는 등 많은 것들을 해야 하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이 스트레스는 결국 본인이 나태해지지 않고 할 일을 마치도록 괴롭히는 채찍이 됩니다. 할 일을 마치고 나면 i)과 같이 결국 팀페이퍼를 완성했거나, 업무에 대한 스킬을 습득했거나, 습득해야 할 지식을 잘 정리했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등 어느 쪽으로든 좋은 결과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ii)와 같이 스트레스의 지속적인 작용은 문제를 할 일을 시간 내에 잘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쁜 스트레스에는 오직 하나,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만을 분류합니다. 이 스트레스는 보통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하며, 위에서 언급한 ‘좋은 스트레스’와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i) 스트레스만 놓고 보면 나의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ii) 딱히 스트레스의 역할이 없어도 문제 해결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함께 조교 업무를 해야 하는 동료 대학원생이 지속적으로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피하는 문제가 있을 때, 또는 동료 대학원생과 갈등이 있을 때 등의 상황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은 내 자신의 수련, 지식 습득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채찍질이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문제를 정확히 직면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내는 동안 스트레스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파괴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털어내고 판단을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온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귀중한 자원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좋은 스트레스는 적당한 수준 하에서 즐기고, 나쁜 스트레스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대학원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교실’을 통해 보람과 재미를 동시에 누리보세요



전우빈
학부 15학번 졸업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크게 변화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습니다. 대학은 코로나의 영향을 특히 강하게 받고 있는 공간 같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매일같이 드나들며 떠들썩했던 캠퍼스였지만 비대면 강의가 이어지며 볼 꺼진 강의실과 한적한 자하연이 때로는 적막하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많은 학교 구성원들이 길어지는 비대면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대학의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망하고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코로나 확산 이후에 입학한 20, 21학번 후배들은 이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간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힘들었던 수험생활을 마치고 대학에 입학한 기쁨을 만끽하며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았을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 힘들어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희망적인 점은 이제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학교에서도 이에 발맞추어 대면 수업을 준비하고 있기에, 코로나 이전의 활기 넘치는 캠퍼스로 돌아갈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생활을 온전히 즐기지 못해 아쉬움이 많을 후배님들께 다시 캠퍼스로 돌아와 마음껏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학 하면 생각나는 대형 강의실에서 교수님께 직접 수업을 들어보고 싶기도 할 것이고 동기들과 엔티를 가서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도 클 것 같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해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공연 무대에 오르기를 원하는 후배님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을 텐데 저는 특별히 ‘나눔교실’이라는 봉사활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나눔교실은 서울대학교 공식봉사단인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에서 진행하는 교육 봉사로 20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 전국 각지의 중, 고등학교로 직접 찾아가 약 1주일간 멘토링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한 주 동안 기숙사에서 지내며 멘티들에게 공부법이나 시간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줄 뿐 아니라 학과 선택과 진로 컨설팅을 도와주고 면접과 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2007년 2월부터 지금까지 매 방학마다 진행되어 이미 수많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였고 2020년 2월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산으로 한 차례 취소된 것을 제외하면 지금도 비대면 형태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상황이 회복되면 언제든지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 도움을 주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네 차례 활동에 참여할 만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눔교실의 큰 매력 중 하나는 모든 프로그램을 20명의 멘토들이 직접 구상하고 준비한다는 점입니다. 수업 내용 기획과 구체화, 필요한 수업 자료와 교재 준비, 더 나아가서는 수업 시연까지 일련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멘토들의

아이디어와 노력으로 채워가게 됩니다. 덕분에 가장 최근에 입시를 치른 선배들의 따스하면서도 예리한 조언들로 이루어진 공부법 수업과 함께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찾아보기 힘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수업들로 대학교의 여러 학문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도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다양한 전략을 바탕으로 다른 조와 경쟁하여 더 높은 수익을 내야 하는 게임을 통해 경제학과 게임이론의 요소들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의 기본 구조들을 바탕으로 멘티들이 직접 다리와 같은 모형 건축물을 만들고 어느 조가 가장 무거운 하중을 버텨내는지 재보는 수업으로 공학을 맛보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특별한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달 이상의 준비기간 동안 매주 수차례 회의를 하고 수업 구성과 자료 준비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쏟게 됩니다. 더하여 팀원들과 서로의 수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애쓰다 보면 한 번 하고 끝인 활동인데 쓸데없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본격적인 멘토링이 시작되고 열정 가득한 멘티들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면 준비과정의 노력은 금세 너무나 큰 보람으로 변하여 엄청난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한 주간의 멘토링이 긴 시간은 아니기에 모든 것을 알려줄 수는 없다는 것이 아쉬웠지만 저를 비롯한 20명의 팀원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멘티로 참여했던 학생이 대학생이 되고 기쁜 목소리로 소식을 전해왔을 때의 보람은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었습니

다. 또다른 나눔교실의 매력은 20명의 서울대학교 학생을 새롭게 만나 교류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나눔교실은 멘토링 활동의 특성에 맞게 멘티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전공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 팀에 가능한 많은 단과대와 다양한 학번이 포함될 수 있게 멘토를 구성합니다. 덕분에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쉽게 접점을 찾을 수 없었던 학우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모인 20명의 팀원이 한 달 이상 매주 수차례 모여 회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으며 여러 번의 회의 뒤풀이나 엔티를 통해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멘토링 기간에는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활동을 마칠 즈음에는 짧은 시간에 훌쩍 친해져 모든 활동이 끝나고도 계속 모이며 친목을 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듯 나눔교실은 1주일동안 내가 한 명의 선생님이 되어 그동안 배우고 공부한 것들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며 신나는 방학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저도 새내기 여름방학 때 처음 참여해보고 나눔교실의 재미에 푹 빠져 열심히 활동하다보니 어느새 네 번이나 참여하고 졸업을 합니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지속되는 비대면 수업으로 입학 이후의 시간이 그저 고등학교의 연장선 같아 느껴졌거나 대학에서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나지 못해 아쉬운 후배님들께 한번 참여해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아쉬움이 남았을 지난 몇 학기가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대학 생활을 더욱 밝게 만들어줄 밑거름이 되기를 응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ECO PLUS FOOTBALL CLUB (에코플러스)

1. 동아리 소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축구동아리 에코플러스는 올해로 창단 23년째를 맞는 동아리로서, 관악을 대표하는 축구동아리 중 하나입니다. 교내 대회(S-League, 총장배, 종합체육대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전국 경제학과 축구대회(EFA컵)에서 활약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수한 축구실력을 가진 동아리입니다.

현재 에코플러스는 경제학부에 속해 있지만 경제학부생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코플러스는 축구를 좋아하는 모든 단과대 학생들에게 열려있는 동아리입니다. 현재에도 자유전공학부, 사회대, 사범대, 공대 등 다양한 소속의 학생들이 함께하여 만남의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실력 또한 가입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축구를 스스로 못한다고 생각하여 망설이지 말고 에코플러스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저희 에코플러스의 모토는 ‘즐거움’입니다. 팀 스포츠로서 팀과 같이 호흡하면서 축구의 즐거움을 함께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연습 후, 경기 후에 가지는 모임을 통해서 팀원들 간에 우정을 다짐으로써 팀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소속감을 느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모임의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 가능한 선에서 친분을 쌓으며 회원들 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축구 실력 향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1회 이상 실전 형식의 연습경기 또는 기본기 훈련세션을 진행하여 축구의 재미를 알아가는 동시에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동아리라고 하여 남학우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코플러스는 여학우분들은 물론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에코플러스는 언제나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 지도교수님 소개

에코플러스의 지도교수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류근관 교수님이십니다. 평소 테니스를 비롯한 운동에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께서도 에코플러스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과 애정으로 응원해주십니다.

3. 동아리 활동 소개

(1) 정기 연습

매주 1회 이상 서울대학교 대운동장을 예약하여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대를 활용하여 두 시간 가량의 연습경기나 기본기 훈련세션을 진행합니다. 연습경기는 주로 교내축구 리그인 S-League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팀과의 경기를 진행합니다. 연습경기인 만큼 자유로운 교체를 통해 다양한 선수들이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쌓아 경기 감각을 익히고, 정식 경기에서 활용할 다양한 전술을 연습합니다. 기본기 훈련세션은 체육교육과 축구부 출신 회원을 중심으로 드리블, 패스, 슈트, 트래핑 등 평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반복 훈련을 통하여 미흡한 기본기를 보완해 나가는 시간을 가집니다. 처음에는 기본기가 부족하더라도 연습경기와 기본기 훈련을 통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S-League

현재 에코플러스는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리그인 S-League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다른 팀과의 경기를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승점이 부여되어 순위에 반영됩니다.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S-League는 2학기말, 상위 6개의 팀들 간에 펼쳐지는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S-League가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매주 주말만 되면 뜨거운 경기의 열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글 : 류지혁
(에코플러스 회장, 인류학과 17학번)

(3) 서울대학교 총장배/종합체육대회

에코플러스는 1학기의 서울대학교 총장배 축구 부문과 2학기의 종합체육대회 축구 부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S-League에 참여하고 있는 팀들을 비롯하여 소규모로 이루어진 많은 팀들이 참여하는 대회이고, 16강부터는 토너먼트로 진행되어 치열한 우승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역대 최고 성적은 4강 진출이었지만, 언제나 우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전국 경제학부 축구대회(EFA컵)

전국 경제학부 축구대회는 매년 여름 방학이 끝나는 8월 3~4주에, 서울에 위치한 15여개 대학교의 경제학부 축구 동아리들 간에 이루어지는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4개 조로 나뉘어 예선 경기를 치루고, 8강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에코플러스는 매년 이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로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서 다른 대학교의 경제학부 축구 동아리와 친분을 쌓아 정기적인 교류전의 형태로 연습 경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5) 홈커밍데이

매 학기 졸업한 OB회원들을 초대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홈커밍데이 행사에서는 OB·YB 친선전과 뒤풀이 모임을 가집니다. 친목도 모를 위한 OB·YB전에서는 OB와 YB간에 팀을 이루어 축구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후 뒤풀이 모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는 평소에 면식이 없던 OB 선배님들과의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홈커밍데이를 통해 OB 선배님들은 동아리에 대한 소속감과 친분을 유지할 수 있고, YB 학우들은 동아리에 대한 애정을 높이고 소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수상실적

- S-League 우승(2014)
- S-League 플레이오프 준우승(2016)
- 전국경제학부 축구대회 우승(2013)
- 전국경제학부 축구대회 우승(2014)

BK21플러스 사업단 소식

본 사업단은 2020년 9월부터 시작하였으며, 지난 7년간 BK21플러스 사업을 바탕으로 연구, 교육 및 국제 평판도에서 국내 1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 경제의 혁신을 선도할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은 “한국경제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고자 한다. 우리 사업단은 국내 1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글로벌 교육연구 허브가 되기 위해 (1) 교수진의 연구 역량 질적 향상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의 교육 체계 개편 (3) 양방향 국제화 실현 (4) 한국경제 당면 과제 해결 기여라는 4가지 실천 전략을 토대로 해외 연구중심대학과 국제기구로 진출 가능한 글로벌 인재양성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2021년도 상반기 학술활동		Pandemic: A Rational Agent's Perspective	박지혜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지역별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가구 소득에 미치는 영향
BK21사업단은 2021년도 상반기에 다음과 같은 학술활동을 지원하였다.		Yoonjoo Jo (Texas A&M University) State Dependent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and Sources of Business Cycle Fluctuations	공우식 (서울대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Dynamic Panel Model with Continuous Threshold Effect: Inference and Testing Continuity
▶BK21/김태성기념세미나 10회 ▶BK21 Brown Bag lunch 세미나 12회 ▶BK21 H-Trio 워크숍 11회 ▶BK21 공동주관 학술행사 24회 ▶BK21 특별강연 4회		Minjoon Lee (Carleton University) Cognitive Decline, Awareness, Agency, and Financial Well-being	황인혁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Expanding Influenza Vaccination Coverage and Spillover Effect within the Family
BK21/김태성 기념세미나		BK21 Brown Bag Lunch 세미나	최윤지 (서울대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Price Elasticity of Healthcare Demand for Insurance: Evidence from the North Korean Defectors
Jidong Zhou (Yale University) Consumer Information and the Limits to Competition	Donggyu Kim (KAIST) Dynamic Realized Market Beta Models	최윤지 (서울대 경제학부 석박통합과정) Physician's Response to Income Shocks: Evidence from Fee Changes in Oriental Medicine	유인경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Effect of Spousal Bereavement on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Women
Jeff Clemen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Why Do Labor Unions Advocate for Minimum Wage Increases?	Niko Matouschek (Northwestern University) The Organization of Modular Production	이수진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Baby Thrown with the Bathwater: The Consequences of Large-size Supermarkets' Mandatory Shutdowns in South Korea	
Lance Lochner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Earnings Dynamics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kill	Heski Bar-Isaac (University of Toronto) Outplacement as Endogenous Adverse Selection	천동민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EITC in Life-Cycle General Equilibrium Economy with Public Pension	Eunjee Kwon (PhD candidate from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Why Do Improvements in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Reduce the Gender Gap in South Korea?
인영환 (KAIST) Signal Exaggeration in Bayesian Persuasion	Andrey Hu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Polarized Public Response to	황인혁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Racial Difference in Longer-Term Effect of Early Life Malaria Exposure	최재림 (University of Hawaii) SSK 해외신진학자 특강: "The US-China Trade War"
		정종우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Impact of the Minimum Retirement Age and Labor Substitutability: Evidence from Korea	안소윤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SSK 해외신진학자 특강: "Marriage Matching and Intra-Household Allocation"
		심재찬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The Taxation of Retained Earnings: Neo-Classical theory, Empirical, and Simulation Analysis	이의정 (Center for Research in Economics and Statistics, CREST) SSK 해외신진학자 특강: “Gender Roles and Female Labor Market Engagement”
		이치호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통근이 지역 고용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홍지은, 이치호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이경호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Proseminar

박지혜, 정종우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이수진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 Proseminar

Eunhee Lee (University Maryland)
Trade, Jobs, and Worker Welfare (joint with Erhan Artuc and Paulo Bastos)

Joseph Sabia (San Diego State University)
Beyond the Draft: Modern Welfare, Veterans' Benefits, and Labor Market Outcomes

Siha Lee (McMaster University)
Spousal Labor Supply, Caregiving, and the Value of Disability Insurance

Hyejin Ku (University College London)
Competition and Career Advancement (with Julian Johnsen and Kjell G. Salvanes)

Kensuke Teshima (Hitotsubashi University)
From Samurai to Skyscrapers: How Historical Lot Fragmentation Shapes Tokyo

Erte Xiao (Monash University)
To Insure or Not to Insure? Promoting Trust and Cooperation with Insurance Advice in Markets

Sevgi Yuksel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Social Exchange of Motivated Beliefs

Jonathan T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Cultural Similarity, Social Preferences & Knowledge Sharing

Tiffany TszKwan TSE (Osaka University)
Beware of AI’s Ability: Algorithm Reliance and Their Performance Level in a Stock Price Forecasting Experiment

Eyal Winter (Hebrew University and Lancaster University)
On Stars and Galaxies: Exploiting Social Influence in Networks

Yoshio Kamijo (Waseda University)
Group Size Paradox Revisited in Group Contest: Theory and Experiment

Pedro Dal Bó (Brown University)
The Determinants of Efficient Behavior in Coordination

Dmitry Shapiro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Limited Impact of Business Development Programs on Entrepreneurs' Profitability in the Presence of Ambiguity Aversion

Nobuyuki HANAKI (Osaka University)
An Experiment on the Nash Program: Comparing Two Mechanisms Implementing the Shapley Value

Marta Serra Garcia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ognitive Flexibility or Moral Commitment? Evidence of Anticipated Belief Distortion

Javier Mejia (New York University Abu Dhabi)
Social Networks and Entrepreneurship. Evidence from a Historical Episode of Industrialization

Ai Takeuchi (Ritsumeikan University)
Bargaining over a Jointly Produced Pie: The Effect of the Production Function on Bargaining Outcomes

Erte Xiao (Monash University)
To Insure or Not to Insure? Promoting Trust and Cooperation with Insurance Advice in Markets

Sevgi Yuksel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Social Exchange of Motivated Beliefs

Jonathan TAN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Cultural Similarity, Social Preferences & Knowledge Sharing

Tiffany TszKwan TSE (Osaka University)
Beware of AI’s Ability: Algorithm Reliance and Their Performance Level in a Stock Price Forecasting Experiment

Eyal Winter (Hebrew University and Lancaster University)
On Stars and Galaxies: Exploiting Social Influence in Networks

Jie ZHENG (Tsinghua University)
How do Alliances Grow and Conflict Ensur? An Experiment on Conflict Network Formation

He Tai-Sen
Mind-Reading Ability Predicts Sales Performance: Evidence from Financial Consultants

Jingjing ZHANG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
Promotion and Demotion in Multi-Stage Contests

John Duffy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Rational Inattention in a Repeated Prisoner's Dilemma Experiment

Ritesh JAIN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ia Sinica, Taiwan)
A Systematic Test of the Independence Axiom near Certainty

Konrad Grabiszewski (Mohammad bin Salman College (MBSC), Saudi Arabia)
Game-form Recognition in Dynamic Interactions

Sanjeev Goyal (University of Cambridge)
Learning in Canonical Networks

Ryo NAKAJIMA (Keio University)
Examining Patent Examiners: Present Bias, Procrastination and Time Pressure

경제연구소 공동 주관 정책포럼
우진희 (숭실대학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우리나라 재정의 장단기 분석

BK21 특별강연

Mark Bills (University of Rochester)
Macro 특강: Lecture 1, 2, 3, 4

21년 1학기

장학금

장학금 수혜 현황
2021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통해 경제학부 학부생 202명, 대학원생 40명이 수혜를 받았다. 기타 교외장학금을 통해서도 학부생 336명, 대학원생 20명이 수혜를 받았다. 그리고 상대향상 재단을 통해 학부생 29명이 향상장학금을 받았다.

교무 및 학생활동

제75회 전기 학위수여
경제학부는 박사 15명, 석사 13명, 학사 169명(최우수 1명, 최우등 66명, 우등 66명)에게 학위를 수여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제75회 전기 학위수여식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스트리밍 재생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21학년도 경제학부 대학원 후기모집
경제학부는 2021학년도 대학원 후기모집을 실시했다. 이번 후기모집에서는 박사과정 대학원생만을 모집하였고, 석사과정에서의 연구 성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와 면접 및 구술고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박사과정 지원자 10명 중 6명의 학생을 선발하였다.

2021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개설
2021년도 하계 계절학기가 6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경제학부는 학생들의 하계계절학기 개설희망교과목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학개론’, ‘경제원론1, 2’, ‘미시경제이론’, ‘거시경제이론’, ‘경제사’, ‘경제통계학’,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1: 이론’, ‘정치경제학입문’, ‘계량경제학’, ‘경제수학’ 교과목을 개설하였다.

국제화 추진 현황

2021년도 1학기 영어강의개설목록

담당교수	교과목명
이근	Economics of Catch-up
김석호	Introduction to Economics Principles of Economics 2
조성진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
이철인	Analysis of Public Policies
Okui Ryo	Introductory Statistics for Economists Advanced Studies in Econometrics
Gueron Yves	Microeconomics Topics in Microeconomics
Dmitry Shapiro	Studies in Microeconomics Exercises in Economics

경제학부 발전기금 출연 현황

기간 : 2021.1. ~ 2021.11.

100억원 이상

두나무 기금
(송치형, 두나무(주) 의장)

1억원 이상

박승(경제 55)

1백만원 이상

정운진(경제 83)

1천만원 이상

강안호, 박수향 (경제 96)
임유철(경제 89)

1백만원 미만

이태희(경제 04)
최진웅(경제 97)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 gonghj1004@snu.ac.kr 전화 : 02-880-6359 홈페이지 : http://econ.snu.ac.kr

학생 수상

안상화 학생, 제8회 산업안전보건
논문경진대회 대상 수상



안상화 학생(석박통합 21학번)이 지난 6월 25일 제8회 산업안전보건 논문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산업안전보건 논문대회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는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개최하는 대회이다. 안상화 학생은 학부 졸업생인 김우성(경제학부 학사 졸업, 스톡홀름 대학 박사과정) 학생과 함께 온라인으로 공저하여 Association between Skills Mismatch and Depression/Anxiety in Korean Workers: Using the 5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라는 논문을 제출하였고, 우수함을 인정받아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안상화 학생은 위 연구를 통해 근로자가 보유한 기술 또는 지식의 수준과 내용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 또는 내용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스킬 미스매치'와 대표적인 정신질환인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편, 이번 제8회 산업안전보건 논문경진대회 시상식은 지난 7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었으며 학생부 우수작 논문 발표(총 6팀)가 있었다. 시상식은 생중계되었으며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다.

김윤수 학생,
'AI올림픽' 그랜드마스터 등극



경제학부 김윤수 학생(경제16)이 글로벌 AI 대회 플랫폼 캐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그랜드마스터가 되었다. 캐글 그랜드마스터는 전세계 16만 인공지능 전문가 중 0.1%만이 누리는 영예이다. 김윤수 학생은 1997년생, 올해 25세의 나이로 국내에서는 6번째이자 최연소 그랜드마스터이다. 특히 문과 출신 학생이 AI 산업 세계 최정상에 올랐기에 더욱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김윤수 학생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캐글'은 구글 산하 AI 알고리즘 대회 플랫폼이다.

인적사항 수정이 필요한 동문 또는 알리고 싶은 소식 있는 동문께서는 소식지 편집조교에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사항 수정의 경우 새 정보로 변경하고, 알리고 싶은 소식의 경우 다음호에 게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출판된 경제학부 소식지는 경제학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